

통일과 간호연구회 학술세미나 초대의 글

코로나19와 남북한 보건의료를 통한 협력과 상생방안(One Health, One World)을 위해서 간호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통일과 간호연구회에서 학술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시그마학회 interest group인 통일과 간호 연구회는 2017년 3월 18일에 시작해서 약4년 동안 남북한 출신의 간호학 석박사과정생, 교수로 구성하여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꾸준한 연구와 학술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첫째로,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와 간호교육 제도를 파악하고 남북간호 교육제도의 통합방안 모델을 연구

둘째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문제와 실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과 운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

셋째로, 통일 공감대를 인식하고, 남북교류를 대비한 남한의 간호학자와 간호사 및 북한 출신 간호인들이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연구와 학술 활동을 통해 통일 전, 통일과정, 통일 후의 간호교육 정책방안을 제시

통일을 위한 준비로 남북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간호와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남북교류 협력은 안전하고 행복한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통일과 간호연구회 회장 김희숙 올림